

北京大 講演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와 한반도

- 일 시 : 2004. 12. 22 (수), 10:00
- 장 소 : 북경대학

통일부장관 정 동 영

존경하는 우즈판 부총장님, 판귀화 국제관계학원 부원장님,
여러 교수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그리고 중국의 미래인 베이징
대학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13억 중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중국 지성의 요람, 베이
징 대학을 방문하게 되어 기쁩니다. 베이징 대학은 근대 중국
의 운명을 개척해 왔으며, 현대 중국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의 중국을 만든 베이징
대학에서, 내일의 중국을 만들어갈 여러분과 대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교정에 들어서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현대 중국
의 역동성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발전 단계는 이미 ‘원바오(溫
飽) 시대’를 지났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 인민 모두가
원하는 ‘전면적 샤오강(小康)사회’에 진입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
다.

중국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아래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는 인민들이 있고, “정치란 인민을 위해 봉
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SARS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현장을
누볐던,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
부의 ‘민생정치(民生政治)’ ‘이민위본(以民爲本)’의 정치에 깊

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중 관계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5년 이내에,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말에 이미 8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중 교역 1,000억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중 경제 관계, 그리고 활발한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이제 한중 양국이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북아의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한중 양국은 근대에 들어와 모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았지만, 끈질긴 투쟁을 통해 마침내, 민족의 해방과 자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는 아직 20세기의 어두운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중국·일본 3국의 국민들 사이에는 과거의 상처에서 생긴 마음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세기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20세기 유럽의 화해를 상징하는 한 장의 감동 깊은 사진을 기억합니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독일수상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 무릎을 꿇었던 장면입니다. 그는 미래를 향한 정치인의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의 화해가 독일의 사죄와 행동으로 가능했듯이, 동북아에서도 침략과 지배로 점철되었던, 20세기 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의 국민들 마음속에 화해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한중간에도 최근 역사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도 있고, “어려움이 닥쳐야 역센 풀의 의미를 알 수 있다(患難知勁草)”는 중국말도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의 역사에서 갈등과 대립보다 협력과 평화의 기간이 더 길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앞으로 함께 써야할 미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과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서로 인정하면서, 한중 양국이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공동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야 됩니다.

교수님과 학생여러분

저는 오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 형성의 3가지 기본 개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개방입니다. 국가간에, 지역간에 ‘폐쇄적인 소아(小我)’가 아니라, ‘열려 있는 대동(大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학도였던 저는 개방하는 민족이 번영하고, 개방하는 지역일수록 평화로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19세기말 개방을 거부하고 쇄국정책을 고수하여, 식민지로 전락한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19세기 중반 개방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은 아시아의 선발 산업국가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중국의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소평 지도자가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제시한 ‘대담한 개방’,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이 결국 오늘날 ‘세계속의 중국 경제’를 가져왔습니다.

‘열린 국가’가 번영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북한도 최근 실리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경제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아울러 북한과 일본간에도 국교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후에 형성된 한반도의 냉전질서가 비로소 종식될 수 있습니다.

열린 동북아 시대를 향해, 한중 양국이 함께 노력합시다.

둘째, 공존입니다. 제가 대학시절부터 좌우명으로 삼아 왔던 말이 있습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입니다. 중국 인민이 사랑하는 정치가, 제가 존경하는 주은래 전 총리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 1955년 비동맹국가들의 반동회의에서 주은래 총리가 했던 이 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체제와 문화를 변경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인정해야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위사고(換位思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 성공을 위해 참여국들이 견지해야 할 원칙이 바로 구동존이(求同存異), 공존의 철학입니다.

셋째, 평화입니다. 동북아에는 여전히 평화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실질적인 평화는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는 결코 위협을 일시적으로 피해보고자 하는 소극적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넘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적극적 평화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평화로운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평화, 그리고 유럽의 안보 공동체와 같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계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합니다.

교수님과 학생여러분

한반도에서 2005년은 뜻 깊은 해입니다. 해방 60주년과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럴 의지가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평화적 해법을 주도해 왔습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하여, 중국이 그동안 기울여온 외교적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05년은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심각한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서느냐의 중대기로입니다.

다행히 아직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a window of opportunity)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6자회담 참여국들의 ‘역사적 선택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북한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변화를 갈망하는 내재적 요구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요하기 보다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슬기롭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은 바로 ‘평화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제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무력 사용에 의한 해결을 바라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 협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협상의 결과를 비관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은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매진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듯이,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해 왔습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과업에 중국이 함께 동참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수님과 학생여러분

저는 지난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 북쪽 지역인 개성공단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개성은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떨어진 접경지역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이지만, 분단의 비극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대를 상징하는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가면서, 문득 현대 중국의 지성, 루신의 소설 한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이란 지상의 길과 같다. 처음부터 지상의 길은 없었다.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냉전 시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에 사람과 물자, 차량이 오가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탈냉전의 역사적 상상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상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갈등을 녹이고 평화를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개성을 방문한 이유는 개성 공단 시범단지에 들어선 첫 번째 기업의 제품 생산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생산한 제품은 그릇이었습니다. 평화를 담고, 통일의 소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개성에서 생산된 그릇은 6시간 만에 비무장지대를 넘어, 서울의 백화점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탈분단의 가능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평화의 길, 오랫동안 한반도가 꿈꾸었던 희망의 길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꿈을 위해 한반도가 앞서 걸어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해양과 대륙세력이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중국인민들이 이 길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수님과 학생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한중 역사의 새로운 기운은 항상 청년이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의 3·1 운동, 중국의 5·4운동을 벽두로, 양국의 역사는 인류 보편사의 흐름에 조금도 뒤짐이 없는 자랑스러운 족적을 그려 왔습니다.

애국·진보의 전통 정신과 창신(創新)의 학풍을 지닌 베이징 대학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중협력과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